

##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손신영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in Korea

Shinyoung Sohn

Department of Nursing, Kyungil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Methods:** The data of the 6th Korean Child-Youth Panel Survey(KCYPS)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4.0 and 24.0 AMOS program. Based on literature review, a hypothetical model consisted of six theoretical variables, twelve paths and seventeen measurable variables.

**Results:** The modified model showed a goodness of fit to the empirical data(GFI=0.958, AGFI=0.940, NFI=0.945, RFI=0.931, TLI=0.904, RMSEA=0.055). Ten paths among twelve paths proved to statistically significant. Depress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directly. Personal characteristics, parenting behavior,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directly and indirectly. Personal factors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Key words:** Life satisfaction, Adolescent, Depression, Self-esteem

---

접수일 : 2017년 7월 4일, 수정일 : 2017년 10월 10일, 채택일 : 2017년 12월 1일

교신저자 : 손신영(3842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Tel: 053-600-5663 Fax: 053-600-5679 E-mail: angel6484@naver.com

## I. 서론

삶의 만족은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이며,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중요하며 일상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삶의 양식과 행동의 기반을 위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의 삶의 만족과 건강한 성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석말숙, 구용근, 2015).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해당 지표가 있는 OECD 가입 국가 22개국 중 최하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염유식 등, 2016),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양호하지 않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적 요구에 대한 갈등이 많고 역할 혼란을 경험하며 사회·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다. 자신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절망하게 되면서 만족스러운 삶과는 더욱 멀어지게 되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심화될 수 있다(이순성, 2010).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 자아정체감과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주리, 2008).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경우 다양한 부적응적인 행동들을 보이며,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우울 및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진·조성호, 2004). 이처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우울과 자살충동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연결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삶의 만족도는 행복, 주관적 안녕, 심리적 안녕, 삶의 질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안지혜 등, 2016).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영향으로 삶에 대해 느끼는 안녕감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며, 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잘 적응하며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의 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돕는데 필요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내적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외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편적인 영향을 측정하기 보다는 내외적 다양한 요인들로 측정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삶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영향요인들이 중요한 외적 요인이 되며, 부모와 또래 집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 가정, 사회 등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 외적 요인인 부모 양육행동 및 또래 애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서 갖는 관계성을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애착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선행연구(김신경 등, 20014; 손보영 등, 2012; 이순성, Oberste 등 2011)의 결과에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으로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평균 수면시간, 비만(김옥선 등 2006; 문재우, 2012)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내적 요인은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정신적인 요인(안지혜 등, 2016)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 우울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윤나, 박옥식, 2009; 석말숙, 구용근, 2015),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 애착 같은 외부 요인들

이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희, 2009; 양숙경, 문혁준, 2012; 정미선, 2010). 우울은 청소년의 주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이며,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신미, 2012; 안지혜 등 2016). 우울은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 애착 같은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문수정, 배지숙, 2016; 성준모, 2016; 조혜진 2006), 내적요인인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성원 2013; 홍연란 등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단순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삶의 만족도의 원인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와 내적요인과 외적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고, 한두 가지 원인을 규명하는 등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처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원인을 단편적으로 규명하기 보다는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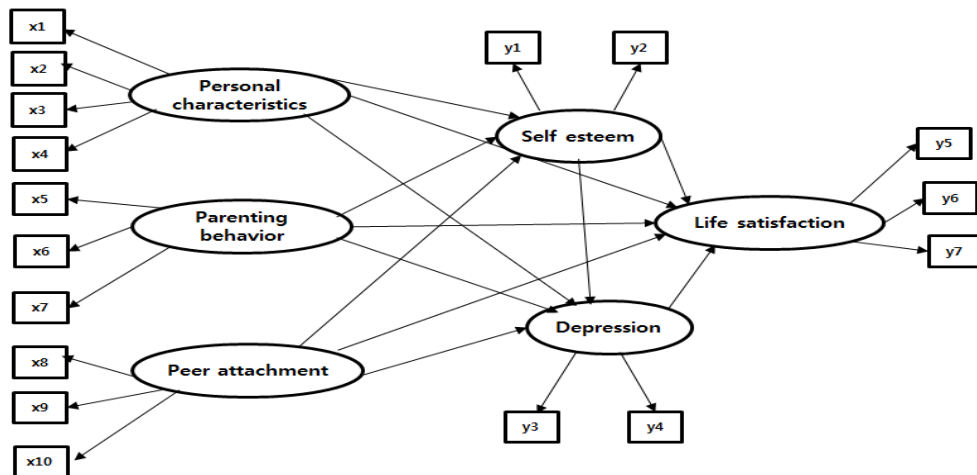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 중 외생 변수인 개인적 특성, 부모 양육행동, 또래 애착과 내생변수인 자아존중감, 우울의 관계를 확인하고 직·간접 경로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중재 가능한 요인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근거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인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 모형을 제시한 후에 모형의 자료에 대한 적합도와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외생 변수는 개인적 특성, 부모 양육행동, 또래 애착이고, 내생변수는 자아존중감, 우울, 삶의 만족도이다(Figure 1).



x1:grade satisfaction, x2:economic status, x3:sleeping time, x4:BMI(body mass index), x5:monitoring, x6:affection , x7:reasonable explanation, x8:communication, x9: trust, x10:alienation, y1: self-esteem1, y2:self-esteem2 , y3:depression1, y4: depression2, y5: life satisfaction1, y6: life satisfaction2 y7: life satisfaction3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4 패널 6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층화다단계 집락표집을 시행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16개 27개의 집락으로 나누어 각 집락별로 할당된 표본 학교를 추출하여 추출된 학교의 초등학교 4학년 학급 수에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1개 학급의 청소년대상자를 1차년도에 선정하여 최종표본은 2,378명이었다. 이 중에서 제 6차년도에 2,061명이 조사에 응했으며 유지율은 86.7%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6차년도에 응답한 2,061명이었다(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7).

## 3. 자료수집

6차년도 조사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1차년도에 구축된 패널들에 대해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면접 조사원이 대상자에게 조사 예고 및 면접약속을 한 후 대상자 개별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대상자의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지와 면접조사원의 응답관리 및 현장 에디팅과 조사사례품 지급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 4. 측정도구

### 1) 부모 양육행동

부모 양육행동은 허묘연(2000)의 부모 양육행동 검사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한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감독(3문항), 애정(4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감독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로 구성되어 있다. 애

정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내가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신다',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이다. 합리적 설명은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양육행동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감독 0.791, 애정 0.831, 합리적 설명 0.772로 나타났다.

### 2) 또래 애착

또래애착은 Armsden와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 문항을 수정하여 구성한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의사소통(3문항), 신뢰(3문항), 소외(3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은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는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이다. 소외는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로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산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애착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의사소통 0.897, 신뢰 0.830, 소

의 0.843으로 나타났다.

### 3)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하여 수정한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10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평가 도구로서 5개의 역문항은 역산하였다.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각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과 구성개념 간의 균형을 이용한 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조현철과 강석후(2007)의 연구에서 개별항목 적용 분석과 item parceling 분석 간의 검정통계량과 유의성 검정에서 변화가 없었고, 모델적합도(Model fitness)가 향상되었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0.833이었다.

### 4) 우울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등, 1984)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된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의 10문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한다', '어떤 일이 잘 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

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일이 힘들다'의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의 각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과 구성개념 간의 균형을 이용한 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0.893이었다.

### 5)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김신영 등(2006)이 개발한 도구를 보완 수정한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의 삶의 만족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0.823로 나타났다.

### 6) 개인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인적 특성은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을 측정하였고, 사용된 변수는 성적 만족도, 경제적 수준, 수면시간, BMI 지수이다. 성적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만족' 3, '매우 만족' 4로 측정했다. 경제적 수준은 '하' 1, '중' 2, '상' 3으로 하였다. 수면시간은 '5시간 이하' 1, '6시간' 2, '7시간' 3, '8시간' 4, '9시간 이상' 5로 측정하였다. BMI 지수는 '30이상' 1, '25.0-29.9' 2, '23-24.9' 3, '18.5-22.9' 4, '18.5이하' 5로 측정하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4.0와 AMO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 변수의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측정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 (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부합도 검정 및 가설검증은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GFI, AGFI, NFI, RFI, TL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고 각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GFI, AGFI, NFI, RFI, TLI의 지수는 0.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RMSEA는 0.10 이하는 보통이며, 0.08 이하 양호, 0.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지수로 판단하였다. 연구모형의 총효과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대상자는 3명을 제외하고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대부분은 중학교 3학년이었다. 남자가 1091명(52.9%), 여자는 970명(47.1%)였다.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가 971명(47.2%)로 가장 높았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129명(6.3%)로 가장 낮았다. 경제적 수준은 ‘중’이 1,296명(62.9%), ‘상’이 565명(27.4%), ‘하’가 200명(9.7%)였다. 수면 시간은 7시간이 786명(38.1%)로 가장 높았고, 5시간이하가 129명(6.3%)로 가장 낮았다. BMI 지수는 18.5-22.9가 1,136명(56.6%)으로 가장 높았고, 30이상은 34명(1.7%)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n(%)
School year	3rd year of middle school	2,058(99.9)
	Others	3(0.1)
Gender	Male	1,091(51.1)
	Female	970(48.9)
Grade satisfaction	Absolutely not satisfied	129(6.3)
	Not satisfied	752(36.5)
	Satisfied	971(47.2)
	Very satisfied	206(10.0)
Economic status	Low	200(9.7)
	Middle	1,296(62.9)
	High	565(27.4)
Sleeping time	≤5hr	129(6.3)
	6hr	387(18.8)
	7hr	786(38.1)
	8hr	580(28.1)
	≥9hr	179(8.7)
BMI(weight/height <sup>2</sup> )	≤18.5	489(24.3)
	18.5-22.9	1,136(56.6)
	23.0-24.9	177(8.8)
	25.0-29.9	173(8.6)
	≥30	34(1.7)

## 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대상자 주요변인들의 서술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 양육행동 중 감독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9.65 \pm 1.73$ (range 3-12), 애정은  $12.49 \pm 2.27$ (range 4-16), 합리적 설명은  $8.75 \pm 1.76$ (range 3-12)이었다. 또래 애착 중 의사소통은  $9.46 \pm 1.52$ (range 3-12), 신뢰는  $9.68 \pm 1.63$ (range 3-12), 소외는  $9.15 \pm 1.97$ (range

3-12)였다. 자이존중감은  $30.62 \pm 4.46$ (range 10-40)이었다. 우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7.76 \pm 5.50$ (range 10-40)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9.19 \pm 1.83$ (range 3-12)이었다<Table 2>. 측정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위해 공차한계와 VIF를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가 0.1 이하의 값은 없었고, VIF는 모두 10 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s	M ± SD	Range
Monitoring	9.65 ± 1.73	3-12
Affection	12.49 ± 2.27	4-16
Reasonable explanation	8.75 ± 1.76	3-12
Communication	9.46 ± 1.52	3-12
Trust	9.68 ± 1.63	3-12
Alienation	9.15 ± 1.97	3-12
Self-esteem	30.62 ± 4.46	12-40
Depression	17.76 ± 5.50	10-40
Life satisfaction	9.19 ± 1.83	3-12

## 3. 가설 모형의 분석

가설모형을 각 요인 간 상관행렬을 기초로 분석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GFI=0.934, AGFI=0.906, NFI=0.912, RFI=0.888, TLI=0.897, RMSEA=0.072로 나타났다<Table 3>. 본 연구의 초기의 연구모형을 유지하면서 간명한 모델을 얻고,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와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가설모형을 수정하였고, 수정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통해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GFI=0.958, AGFI=0.940, NFI=0.945, RFI=0.931, TLI=0.904, RMSEA=0.055로 적합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수정모형을 채택하였다. GFI, AGFI, NFI, RFI, TLI는 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자료가 모델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Table 3>.

<Table 3> Model fitness statistics

Categories	GFI	AGFI	NFI	RFI	TLI	RMSEA
criteria	≥0.9	≥0.9	≥0.9	≥0.9	≥0.9	0.08-0.10(Meiocre fit) ≤0.08(Good fit) ≤0.05(Excellent fit)
hypothetical	0.934	0.906	0.912	0.888	0.897	0.072
modified	0.958	0.940	0.945	0.931	0.940	0.055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RFI: Rel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이론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가설모형 경로 중 수정지수와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12개의 경로 중 개인적 특성과 우울

경로와 부모 양육행동을 삭제하여 수정모형의 10개 경로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유의성 검증은 유의수준 .05에서 양측 검정시 임계치의 절대값이 1.96보다 큰 것으로 평가하였고, 총 10개의 경로 중 10개 모두에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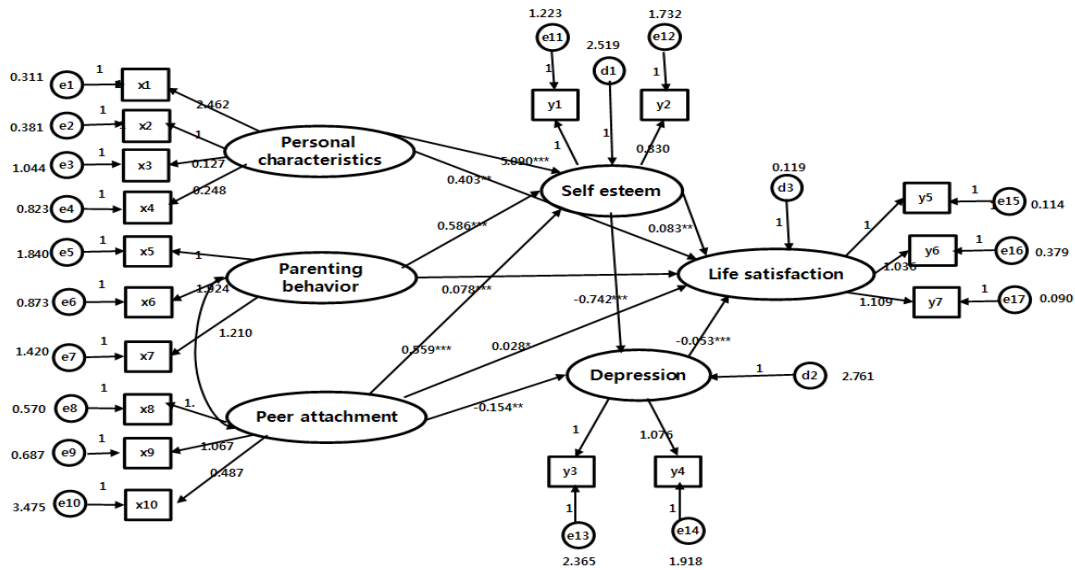
<Table 4>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of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beta$	S. E.	C. R. (p)
Self-esteem	Personal characteristics	5.090	0.781	6.522(<.001)
	Parenting behavior	0.586	0.059	9.890(<.001)
	Peer attachment	0.559	0.047	11.827(<.001)
Depression	Peer attachment	-0.154	0.047	-3.243( .001)
	Self-esteem	-0.742	0.031	-23.585(<.001)
Life satisfaction	Personal characteristics	0.403	0.133	3.028( .002)
	Parenting behavior	0.078	0.013	6.020(<.001)
	Peer attachment	0.028	0.011	2.565( .010)
	Self-esteem	0.083	0.111	7.420(<.001)
	Depression	-0.053	0.007	-7.430(<.001)

개인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의 경로계수 5.090(p<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부모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경로계수 0.355(p<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또래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경로계수 0.609(p<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래 애착과 우울의 경로계수 -0.154(p=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경로계수 -0.742(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의

경로계수 0.403(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부모 양육행동과 삶의 만족도의 경로계수 0.078(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래 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경로계수 0.028(p=.01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경로계수 0.083(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경로계수 -0.053(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igure 2>.





x1:grade satisfaction, x2:economic status, x3:sleeping time, x4:BMI(body mass index), x5:monitoring, x6:affection, x7:reasonable explanation, x8:communication, x9: trust, x10:alienation, y1: self-esteem1, y2:self-esteem2 , y3:depression1, y4: depression2, y5: life satisfaction1, y6: life satisfaction2 , y7: life satisfaction3  
\*p<.05, \*\*p<.01, \*\*\*p<.001

<Figure 2> Path diagram for the modified model characteristics

연구모형에 대한 전체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준화된 공변량 분해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

과, 총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in path model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Self-esteem	Personal characteristics	5.090***		5.090***
	Parenting behavior	0.586***		0.586***
	Peer attachment	0.559***		0.559***
Depression	Personal characteristics		-3.779***	-3.779***
	Parenting behavior		-0.435***	-0.435***
	Peer attachment	-0.154**	-0.415***	-0.569***
	Self-esteem	-0.742***		-0.742***
Life satisfaction	Personal characteristics	0.403**	0.619***	1.022***
	Parenting behavior	0.078***	0.071***	0.149***
	Peer attachment	0.028*	0.076**	0.104**
	Self-esteem	0.083***	0.039*	0.122***
	Depression	-0.053***		-0.053***

\*p<0.05, \*\*p<0.01, \*\*\*p<0.001

자아존중감에 대한 직접효과의 경우 개인적 특성은 5.090으로 양의 관계였고, 부모 양육행동이 0.586으로 양의 관계였으며, 또래 애착이 0.559로 양의 관계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총효과는 개인적 특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총효과는 -3.779로 음의 관계였고, 간접효과만 측정되었다. 부모 양육행동의 총효과는 -0.435로 음의 관계였고, 간접효과만 측정되었다. 우울에 대한 또래 애착의 직접효과의 경우 -0.154이고 간접효과가 -0.415이며 총효과가 -0.569로 음의 관계였다. 우울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총효과는 -0.742이었다. 우울에 대한 총효과는 개인적 특성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직접효과는 0.403이고 간접효과는 경우 0.619이며 총효과는 1.022로 양의 관계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 양육행동의 직접효과는 0.078이고 간접효과는 경우 0.071이며 총효과는 0.149로 양의 관계였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또래 애착의 직접효과는 0.028이고, 간접효과는 0.076이며 총효과는 0.104로 양의 관계였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아 존중감은 직접효과의 경우 0.083이고 간접효과의 경우 0.039, 총효과는 0.104로 양의 관계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우울의 직접효과는 -0.053이고 총효과도 -0.053로 음의 관계로 나타나 우울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총효과는 개인적 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여 요인에 대한 관계의 규명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직간접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우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개인적 특성, 부모 양육행동, 또래 애착과 자아 존중감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의 총효과가 가장 높았다.

우울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신미, 2012; 이미순, 2013, 안지혜 등, 2016)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 양육행동, 또래 애착, 자아존중감의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가족이나 지역의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지역의 주요 환경과의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고립되는 경험을 반복하면 청소년의 우울이 심각해질 수 있다(Hall-Lande 등, 2007). 우울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만성화되어 성인기까지 지속될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청소년시기의 우울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석말숙, 구용근, 2015; 김윤나, 박옥식, 2009; 이미순, 2013)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박미정 등(2011)등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우울이 낮았다. 자아존중감

을 성취한 청소년들은 목표를 재통합하고,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가지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자아존중감이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무력감, 우울, 혼란감, 허무감을 경험하게 된다(정미란, 200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 우울은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처럼 개인의 내적인 부분을 길러주는 교육활동 및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인성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자아존중감은 부모양육행동과 또래 관계의 삶의 만족도 매개변수로 작용을 하므로 가정에서 뿐 아니라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 증진시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김신경 등, 2014; 손보영 등, 2013)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부모의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자녀의 의사와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부모와 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김신경 등, 2014). 부모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효과적으로 청소년 자녀에 대한 양육을 위해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

로 하는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지원이 정책수립을 통해 학교, 지역공동체,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형성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점차 경쟁화되면서, 가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강조되고 있으며, 우울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정신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우울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중재는 부모와의 관계 확립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우울관련 정책에서 부모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관한 이해 및 자녀와의 대화법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부모 양육행동 및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가치관과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교육은 청소년의 발달 및 삶의 형성 과정에 중요하다. 특히 보건의교육의 경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비형식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올바른 양육행동 강화를 통한 청소년과 긍정적 관계 형성으로 가정내 적절한 보건의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은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서적 지지를 통한 우울 증상 감소로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래 애착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애착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 같은 정신·심리적 요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이순성, 2010; Oberle 등, 2011)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Ma & Huebner(2008)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또래와 애착행위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기이고 또래 애착이 부모애착 다음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

족도를 예측하는 원인으로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애착은 청소년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청소년의 외부 환경은 성인처럼 다양하지 않고, 학교에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또래와의 관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또래와의 관계 형성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다. 또래애착이 잘 형성되면 나중에 사회를 잘 적응할 수 있고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청소년은 또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또래의 중요성과 또래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올바른 또래 애착 형성을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개인적 특성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성적 만족도, 경제적 수준, 수면시간, BMI 지수가 개인적 특성으로 사용되었다. 개인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 만족도, 경제적 수준, 수면시간, 비만지수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김옥선 등 2006; 문재우, 2012)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선행결과에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우울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우, 2012). 수면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는데, 수면이 건강유지와 정신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비만이나 성인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백인경과 신철, 2011),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에게 적절한 수면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보건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수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건교육에 활용을 통해 적정 수면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BMI 지수가 비만에

해당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청소년은 자아 존중감의 상실, 우울, 부정적 자기신체 이미지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겪기 쉽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 저하를 초래하고,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발달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우, 2012). 청소년기는 체형이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래와 비교하게 되며, 자신의 비만을 발견하게 되면 정체감의 혼돈을 겪게 되며 삶의 만족도가 저하 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의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식습관 및 운동 관련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으로 청소년의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특성,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 애착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부모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석말숙, 구용근 2015; 정미선, 2010)과 결과가 일치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모 자녀 간 바람직한 관계형성이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정미선, 2010). 부모가 합리적으로 자녀를 감독하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대하며 수용적으로 자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양육행동을 보이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성격, 행동, 건강한 인격발달과 자아 실현에 중요한 요소인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필요하다.

또래 애착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양숙경, 문혁준, 2012; 김수희, 2009)들과 일치하는 결과는 보였다.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감을 발달시키게 되며 또래와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나

또래에 대한 애착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김수희, 2009). 청소년들이 또래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이 자아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또래와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올바른 의사소통과 신뢰감 형성 및 감정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또래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신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가정과 학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 형성의 장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은 자아존중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또래 애착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개인적 특성과 부모 양육행동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선행연구들(임성원, 2013; 홍연란 등, 201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ela 등(2006)은 높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증상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인격 특성의 소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를 위해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모 양육행동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행동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선행연구(성준모, 2016)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늘어나도록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면 우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청소년의 우울 감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염소립, 최유석, 2014). 부모교육 등을 통해 온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지지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Wille 등, 2008).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이나 지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인 위험요소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성준모, 2016).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보충과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래 애착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래 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문수정, 백지숙, 2016; 조혜진, 2006)과 일치한 결과이다. 또래 애착이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애착을 통해 청소년 자신의 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또래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한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우울을 보였고, 또래친구의 수가 적고, 인기가 없는 청소년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Beem 등, 2002).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또래 애착이 이루어져야 됨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고려한 상담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고려되는 개인적 특성, 가족요인과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관계와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역할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의 내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동시에 확인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초 4 패널을 대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전 연령 대상이 아니므로 전체 청소년에 대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대상자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 활용한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모두 표현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변수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개인적 변인 및 가정요인, 또래요인, 사회적 요인 등 외적 환경 요인과 내적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고, 중재 가능한 요인을 도출해 삶의 만족도 향상 중재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요인 중 수면시간, BMI 등 건강과 관련한 개인적 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적절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차원에서 분석한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결과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 향상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 부모와 또

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필요하므로 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부모의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래와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올바른 의사소통과 신뢰감 형성 및 감정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관계 형성의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원인으로 파악되었고, 우울은 단순히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이나 지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또래애착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지지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우울 감소를 통해 삶의 만족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통한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규명하여 그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각 요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연구하였다. 우울, 자아존중감, 개인적 특성, 부모 양육행동, 또래 관계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고, 개인적 특성,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매개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부모와 또래 같

은 외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할 때는 수면시간과 비만 지수 등 개인의 건강 요인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 같은 개인적 정서적 요소 뿐 아니라 부모, 또래관계 등 외적 환경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과 문제 해결을 통한 접근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과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간이 정신진단 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1984.
2. 김수희.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3.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부모 양육행동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014;16(2):163-182.
4. 김신영 등. 청소년발달지표조사1,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5.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초등학교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아동교육2006;15(1):195-207.
6. 김윤나, 박옥식. 청소년 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09;11(1):79-99.
7. 문수정, 백지숙. 청소년기 부모애착,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 비교연구. 청소년시설환경 2016;14(3):149-160.
8. 문재우. 청소년의 비만, 우울, 자아존중감 및 신체 이미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보건교육학회지 2012; 13(2):119-146.
9. 박미정, 김희순, 박소미, 최지혜.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유무에 따른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공격성 비교, 대한 아동간호학회지, 2011;17(4):264-271.
10. 백인경, 신철. 수면시간과 비만, 열량영양소 섭취비율 및 신체 활동량과의 관련성.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11; 16(3):315-323.
11. 석말숙, 구용근. 가족요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15;17(1):55-74.
12. 성준모,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요인. 청소년복지연구 2016;18(4):93-111.
13.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012;23(1): 149-173.
14. 신미. 청소년 삶의 질 척도 타당화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012;14(1):163-194.
15. 안지혜, 윤유동, 임희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중학생 삶의 만족도. 디지털융복합연구 2016;14(2):197-208.
16. 양숙경, 문혁준. 가족기능,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12;19(2):115-130.
17. 염소림, 최유석.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4;14(9):255-266.
18. 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조사,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6.
19. 이경진·조성호.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04;16(4):667-685.
20. 이미순. 청소년의 부모애착, 자아요인, 정신·심

- 리적 요인,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련성[박사학위논문]. 경기: 한세대학교 대학원, 2013.
21. 이순성.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중단적 추이 분석 [박사학위논문]. 춘천 :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0.
  22. 이주리. Data Mining을 이용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 요인 및 위험요인 탐색. 인 간발달연구, 2008;15(4):51-65.
  23. 임성원, 중단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24. 정미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삶의 의미 및 진로성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25. 정미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2010;25:140-170.
  26. 조혜진. 청소년의 또래 애착과 우울, 불안: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27.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CYPS) 1-7 User Guide. 서울: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2017.
  28.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29. 홍연란, 장군자, 최정숙. 저소득층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16;21(1):179-189.
  30. Abela JRZ, Webb CA, Wagner C, Ho M, Adams P. The role of self-criticism, dependency, and hassles in the course of depressive illness: A multi-wave longitudinal study of vulnerability and resilienc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06;32:328 - 338
  31. Armsden GC, Greenberg MT.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87;16(5):427-454.
  32. Beem MR., Gil-Rivas V. Greenberger E, Chen C.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depressed mood : Risk and protection within and across social contex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02;31(5):343-357.
  33. Hall-Lande JA, Eisenberg ME, Christenson, SL, Neumark-Sztainer D. Social isolation, psychological health and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ce. *Adolescence* 2007;42(166):265-86.
  34. Ma CQ, Hueber ES.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me relationships matter more to girls than boys. *Psychology in the Schools* 2008;45(2): 177-190.
  35. Oberle, E., Schonert-Reichl, KA., Zumbo, BD. (2011).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Personal, neighborhood, school, family, and peer influ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 889-901.
  36.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37. Wille N, Bettge S, Ravens-Sieberer U, The BELLA study group.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children's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results of The BELLA study.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008;17:133-147.